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주요 이슈 및 지방 정부 시사점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tdlee@yonsei.ac.kr

요약

I COP28의 의미

- COP28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최초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시행했으며 기후변화 적응 촉진을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를 논의함
-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 보상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과 7.9억불 공여 서약
- 10년 이내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에너지 사용 절반 감축', '석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문 도출

II COP28 개최에 따른 지방정부 시사점

-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가장 주요한 단위이자 첫 행위자로서 도시의 역할 강조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다층협력 필요
- COP의 결정을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고 시행, 모니터링하는 기제 필요

정책제언

I COP28의 이후 수원시 과제

- 국제협력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수원시의 노력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
 - C40, 언더2연합 등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외교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의 '기후변화 안전도시' 선언,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등 경험을 COP 참여 도시와 교류하며 성과홍보 및 벤치마킹의 기회로 활용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경험을 통한 혁신적 시그니처 사업 발굴
 - 리빙랩 기반의 기후적응 대응으로 참여와 혁신의 기후 적응 계획 수립

1 제 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주요 이슈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요약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UAE 두바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 까지 2주간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198개국) 정부 대표, 금융 및 경제계, 기후, 종교계 관련 인사 등 약 10만 여명 참여
 - 4대 목표로 ①기후금융 개선, ②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③기후변화 적응, ④포용성 강화를 제시
 - 주요논의내용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생산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식량·농업 시스템 개선 △취약 부문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COP27에서 식량안보 의제를 최초로 다룬 데 이어 COP28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Health) 의제를 최초로 다루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 진행
 - 주요성과는 △파리협정 이후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과발표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퇴출·감축 합의에 대한 논의 △‘손실과 피해’ 기금의 공식 출범 및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 피해 지원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 △ 기후변화 회의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 감축 노력이 언급,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는 기술개발 및 확산 방안 논의 △탄소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행동 방안 도출 등 가시적 성과 마련

□ 전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

- 파리협정 제14조 이행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제1차 결과가 COP28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됨
 - 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실시된 GST를 통해 지구온도상승 억제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
 - 방안으로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의 전환,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서스”를 채택했음
 -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전 세계가 파리협정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1.5℃ 기온상승 제한) 달성 경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체계¹⁾로, 지난해 첫 실시되어 이후 5년마다 실시
 - COP 28·29·30의 3개 의장국(UAE, 아제르바이잔, 브라질)이 주도하는 ‘Roadmap to Mission 1.5’를 출범해 2035 NDC 목표 향상 및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이행을 강화

□ 손실과 피해

-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영 주체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Damage)’이 COP28을 통해 공식 출범
 -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 4년의 잠정기간 동안 세계은행에서 금융중개기금(FIF)²⁾의 형태로 기금 유치,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 대상 제공
 - 선진국의 재정투입을 촉구하며 기타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함. ‘23년 11월 기준, 각국에서 약 7.9억 달러 규모의 공여³⁾를 약속했지만 이는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금액의 0.2% 수준에 불과

1) 평가기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감축 노력,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행의 종합적 영향, △적응 노력의 현황, △기후재원 및 행동과 지원 노력, △장애탈외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고려

2)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으로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관 등

- 또한 세계은행이 4년의 잠정 기간동안 동 기금 및 사무국을 유치하되, COP28 종료 8개월 이내 전제 조건⁴⁾ 충족 여부를 기금 이사회(Board)가 확인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로 함
- 선진국 12개국, 개도국 14개국 대표단의 총 26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며, 손실과 피해 기술자원을 위해 '산티아고 네트워크⁵⁾'가 지정, 손실과 피해 기금 사무국은 '유엔재난위험감시기구(UNDRR)'과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컨소시엄이 지정,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와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의 공동관할 하에 두기로 함

□ 전지구적 적응 목표 : 기후적응

- 전 지구적 적응 목표인 UAE 기후회복력 체계(UAE Framework for Global Climate Resilience)를 정식 채택하고 2030년까지의 목표치 제시
 - COP26(2021)에서 합의된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2개년 작업프로그램의 결과로, UAE 기후회복력 체계를 채택하고 부문별(수자원, 식량, 보건, 생태계, 문화유산 등) 목표치와 정책주기별(위험성평가-계획-이행-평가) 목표치 제시
 - 최초로 보건 및 식량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기후탄력적인 식량 및 농업 생산·공급·유통을 추구하고 회복탄력적 의료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됨
- UAE-Belém 2개년 작업프로그램을 구축해 부문별·정책주기별 목표지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정량화 요소 등을 개발할 예정
- 기후회복력 체계는 구속력을 가지진 않으며, 추가적인 보고 부담을 덜기 위해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국가 적응계획, NDC 등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감축(Mitigation)

- 기후변화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체계 전환(Transitioning away)에 합의
 -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문의 수정안에는 석탄의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감축'으로 수정되었으며, 합의문에는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명시된 것에 의미를 찾고, 앞으로 이행여부에 초점을 옮기는 추세임
 - EU를 필두로 화석연료 단계적 중단(phase-out)을 의제로 추진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한계
- ✓ EU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모든 민간 투자 금지, 최대 2025년까지 모든 직간접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 등을 담은 '새로운 석탄 배제 정책(New Coal Exclusion Policy)' 제안
 -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산유국과 러시아는 화석연료 감소가 아닌 배출량 저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전 세계 연간 평균 에너지효율 2배 개선 추진
 - 당초 미국과 유럽연합은 10년 이내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에너지 사용 절반 감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안
 -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 11TW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며 개별 국가⁶⁾에 구체적 용량 수치나 기준시점 등은 최종 합의문에서 제외됨

3)아랍에미리트 1억불, 독일 1억달러, 이탈리아 1억유로, 미국 1750만불, 일본 1천만불 등 재원공여

4)△기금의 운영규칙이 WB의 정책보다 우선, △모든 개도국(WB 비회원국 포함)이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및 CMA)의 지침 준수 등

5)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협력체계와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되었으며,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구성 등에 합의

6) 전력기본수급계획에 따르면 한국 재생에너지 용량은 '22년 29.2GW(기가와트), '23년 전망은 32.8GW로 재생에너지 3배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90GW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저탄소 수소 생산 등 무탄소·저탄소기술 활용 가속화 추진
- 주요 감축기술로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과 CCUS가 포함된 것에 주목할 필요
- COP26·27에 이어 저감장치 없는 석탄에너지의 단계적 감축(phase-down) 및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phase-out) 노력을 재확인했으며, 이외 2030년까지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운송 부문 배출량 감축 노력 강화에도 합의

□ 기후테크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는 기술 개발 및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탄소감축 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행동 방안 도출, 그 결과 탄소 저감이 어려운 산업에서 개발도상국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후클럽(Climate Club)' 공식 출범)
- '기후클럽'⁸⁾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 중

✓ 기후 클럽 주요 의제

- ① 기후대응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참여국간 정책 효율성과 경제적 영향 확대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위한 대화 확대, 배출량 계산 및 모니터링 도구 강화
- ② 산업 탈탄소화
→ 녹색 기술산업 시장 확대 위해 산업별 탄소저감 방법론, 표준, 전략 조정 및 실질적인 산업 탈탄소화 지원 방법 마련
- ③ 기후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기후 대응조치 장려위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탈탄소 지원 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국가의 산업 환경을 기후 친화적 방향으로 유도

<2030 Net-Zero 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별 용량>



출처 : WEF Bold Measures to Close the Climate Action Gap_2024

7) COP2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기후클럽(Climate Club) 공식 출범 (2023.12.1), 브뤼셀 무역관

8) '기후클럽'은 2022년 1월 G7 정상회의에서 독일이 제안한 협력체로,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

2 COP28 기후변화와 도시

□ COP28 기후변화와 도시 역할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023~2026년)’에서 각국의 실질적 감축실행을 위한 결정문 협상 진행⁹⁾
 - 국제탄소시장의 본격적 운영을 위한 △허가 변경 절차, △등록부 간 연결, △감축실적 승인 시점 등의 기술적 사항 논의
-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가장 주요한 단위이자 첫 행위자로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도시 간 거버넌스 등의 역할은 향후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저탄소 생산,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도시와 지역들이 변화해야 할 것을 촉구
 - 또한 도시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75%,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써 탄소 감축과 혁신 전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부상

□ COP28 기후변화와 도시 적응

- 유럽연합 산하의 CoR(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는 도시나 지방 정부의 효율적인 적응 조치가 지연된다면 기후위험이 증폭되고, 생명다양성의 손실과 주민 건강 악화, 장기적으로 손실과 피해의 영구적 지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¹⁰⁾
 - 특히, COP28에서도 LGMA(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Constituency, 지방정부그룹에서는 국가의 지방 정부(Constituency) 이행을 위한 지방, 지역 정부 수준에서의 발전 방안과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 NAP)의 도시 단위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논의했음
 - 도시에서의 화석연료 감축과 별개로 기후 적응에 취약한 시민들을 선점하고, 이들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해 에너지 빈곤을 줄여야 할 것임
 - 또한 기후 펀딩에 대해 지역, 지방단체가 직접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지지하며, 지방정부들이 기후 펀드와 재정 옵션을 활발히 가용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 역시 필요함을 지적했음
-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Under 2 Coalition)¹¹⁾은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경험 공유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후그룹임
 - UNDP에 의하면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행동의 80%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들이 1.5°C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에서부터 출발
 - 경제의 전환과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장의 형성, 정의롭고 평등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들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 제안, 지지자 모집,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세계적 행동 추구 등의 역할을 수행함

9) COP27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감축 의욕·이행 강화, 연간 최소 2회 전지구적 대화체 개최 이행을 반영한 결정문 채택 등이 담김

10)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Press News (2023.10.17.)

11) Under 2 Coalition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최대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이 2015년 5월 설립한 연합체이며, 현재 45개국 200여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정회원 요건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시 △언더2연합 MOU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현재 또는 향후 감축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전략 채택 및 공표 △언더2연합 사무국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 측정량 고시 등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약속해야 함

3 지방정부와 수원시 COP28 시사점

□ 지방정부의 역할¹²⁾

○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총 71개국이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oalition for High Ambition Multi-level Partnerships, 이하 CHAMP)'을 선언
- CHAMP는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제안으로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아래,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의 다층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¹³⁾
- 이 선언은 구속성은 없지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으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행동을 결집하여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¹⁴⁾

○ 세계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Local Climate Action Summit, LCAS)와 지방정부그룹(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LGMA)

- LCAS는 COP 최초 공식행사로 진행, 66개국 200여 개 지방정부에서 대표들이 참석, 진행돼, 총 45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자리해 성공적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다층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음
- 특히, 지방정부 대표들은 COP28 기간 내내 기후금융 마련과 기후행동 강화, 에너지 전환 촉진, 회복력 강화, 적응 대책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음
- 도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 준비 및 대비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의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도시의 기후변화 이행 약속들을 시행할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여부임¹⁵⁾
- 기후 정의, 재난 회복, 지속가능한 경제 조성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재원의 필요성을 역설
- 향후 COP28의 결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고, 시행, 모니터링하는 하는 기제 필요

○ 도시 기후리더십그룹 C40(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 C40은 2005년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대도시의 모임으로, 서울, 뉴욕, 런던, 베이징, 파리 등 세계 40개의 회원도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함
- C40 의장인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합의해야 한다며 화석연료 산업의 부당한 영향력을 억제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각국 정상들에게 보냈음

12) ICELI, [생생 COP28]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13) 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외교부 보도자료(23.12.3))

14) [생생 COP28]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이클레이한국사무소(23.12.7)

15) Ariel Dekovic. (2023.11.20.)

□ COP28과 수원시

○ 주요 지자체의 COP28 주요 활동

- 국내에서는 제주도, 고양시, 충남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주시 등 7개 지방정부가 COP28에 참가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기후 리더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모색
- 제주도는 한국홍보관에 참여,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제주'라는 홍보데스크 운영, 그린수소 정책을 소개했으며, 제주도 지사는 '국제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Under 2 Coalition) 총회'에 참석, 회원 가입을 위한 MOU 체결 및 기조 연설
- 충남도지사는 유일하게 COP28 총회 개막식의 세계 12개 지방정부 대표로 특별초청을 받았으며, 언더2연합 총회 등을 잇따라 참석,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국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했음
- 전라남도는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이란 국제포럼을 개최했으며,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COP33의 유치를 위한 홍보와 지지를 촉구했음

○ 수원만의 특화된 정책 실현에 나서야

- 수원시는 SDGs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유엔 SDG 17개 목표를 10개 목표로 통합하고 57개의 세부목표, 152개의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 지역화의 성공적 모델 제시하고 있으며, 민관거버넌스 구축뿐만 아니라 자체의 SDGs 수립과 세부목표 설정, 모니터링 또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기후변화 안전도시' 선언 및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운영 등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이후 '리빙랩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 국제적으로 주목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사업 발굴 및 축적 필요
- COP28에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이후 기후 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다층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 강조됨.
- 'C40(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Under 2 Coalition)'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차원의 도시외교 주도적 역할 필요
- COP29와 COP30을 앞두고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다층 기후 행동에 관한 글로벌 고위급 정치 대화를 개최해 CHAMP 공약 이행에 대한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OP 사전 방문 등을 통해 도시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저감 최신 동향 파악 및 수원시의 SDG와 기후변화에 대한 성과 연계
- 또한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COP29에 수원시 대표단 참여, 콘텐츠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방안을 사전에 준비, 축적된 수원시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세계 지방정부들에게 공유 확산 필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의 상대적 규모(Relative siz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출처 : WEF Bold Measures to Close the Climate Action Gap_2024

■ 참고문헌

- 강승남, 2023. 11. 30, 제주 그린수소 정책 세계에 소개...지자체 유일 COP28 한국홍보관 참여, 뉴스원제주
<https://jeju.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88705>
- 김엘진, 2023. 12. 01, 전남, 두바이서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 국제포럼 개최, 현대해양.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0>
- 김은영, 2017, 수원시 도시 회복력 평가 및 증진방안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 2022,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오말리, 2023. 11. 27, COP28 분석 ④: 2035 NDC 반영될 전자구적이행점검(GST)과 손실과 피해 기금 총정리, Greenium.(2023.11.30. 검색)
- 윤나경, 2023. 11. 29, 경기 고양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참가... "기후 위기 해법 논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9276>
- 이준성, 2023. 12. 01, [COP28] 전세계 40개 도시 시장들도 나섰다... "화석연료 퇴출시켜라", 뉴스트리.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12010008>
- 이진영, 김은경, 2023, 한국 지방정부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이행 분석을 통한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 28권 2 제 3호
- 이진원, 2023. 11. 21, "AI 활용해 기후변화 피해 막자"... COP28 앞두고 구글 제안, ESG경제.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8>
- <https://greenium.kr/climate-policy-cop28-4-gst-2035-ndc-implementation-loss-damge-fund-korea/>
- 정라진, 2023. 11. 06, [1.5°C HOW] 선진국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 가능할까, 한스경제. (2023.11.30. 검색)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921>
- 정라진, 2023. 11. 13, [1.5°C HOW] EU·美, 전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이끈다... "3배 늘리자", 한스경제. (2023. 11. 30. 검색)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766>
- 정라진, 2023. 11. 30, [1.5°C HOW] COP28 '개막' ...주요 쟁점은 '파리협정'과 '손실과 피해', 한스경제. (2023.11.30. 검색)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1658>
- 삼정KPMG Business Focus COP28 Review UAE 컨센서스.
- Ariel Dekovic, 2023. 11. 20, COP28: A Pivotal Moment for Cities and Subnationals in the Climate Crisis, ICLEI News.
<https://iclei.org/news/cop28-preview/>
- Bloomberg and Aki-Sawyer, 2023. 12. 01, At COP28, Cities Will Show Us the Way. Project Syndicate, The world's opinion page.
- COP2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기후클럽(Climate Club) 공식 출범 (2023.12.1), 브뤼셀 무역관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ities-subnational-governments-model-solutions-for-national-and-international-leaders-by-michael-r-bloomberg-and-yvonne-aki-sawyer-2023-12>
- Greater London Authority, 2020, London City Resilience Strategy 2020.
-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23. 10. 17, "COP28: EU will push for stronger involvement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CoR News.
<https://cor.europa.eu/en/news/Pages/COP28-stronger-involvement-of-local-and-regional-governments.aspx>
- Fortunoff and Sparkman, 2023. 11. 29, How COP28 can help cities drive climate action, Atlantic Council EnergySource.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nergysource/how-cop28-can-help-cities-drive-climate-action/>
- Resilient Melbourne, 2016, Resilient Melbourne strategy.
- The City of New York, 2016, Resilient Neighborhoods West Chelsea.
- WEF_Bold_Measures_to_Close_the_Climate_Action_Gap_2024.
2023.10.17.,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Press News,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적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